

노충현 개인전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



산책, 2013, 캔버스에 오일, 227x162cm, 작가 소장.

전시 7월 14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5-8449

도시의 메마른 풍경에 개인적인 감상을 더한 '풍경' 연작을 선보여 온 화가 노충현이 신작을 들고 찾아왔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살풍경(Prosaic Landscape)'에서는 오랫동안 탐구해 온 풍경화 연작 35점을 소개한다. '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대로 '살풍경' 연작에서는 작가가 거닐며 지켜본 한강시민공원의 한적한 풍경을 보여준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작가가 발견한 풍경은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의 그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작가는 때로는 스산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묻어나기도 하는 그곳의 풍경에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더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밤 풍경과 한겨울 눈으로 덮인 풍경, 여름 장마철 풍경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 작가는 "현실 속 풍경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색채나 느낌을 바꿔서 그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실제 모습은 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심상이 그림에 삽입된다"고 설명한다.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야나기 무네토시' 전

전시 7월 21일까지
관람료 5천 원
문의 02-2022-0600

일본의 근대 공예운동가 야나기 무네토시(柳宗悅, 1889~1961)는 1919년 3·1 운동 두 달 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조선인을 생각한다'는 글을 연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3·1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탄압과 동화 정책을 비판했다. 조선 백자 등 한국 공예품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야나기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야나기 무네토시' 전을 열고 그가 수집한 일본민예관 소장품과 자료 등 139점을 선보이고 있다. 야나기의 미(美)에 대한 관심은 일본과 서양 뿐 아니라 조선을 넘어 중국과 대만으로까지 뻗었고 영국인 도예가 버나드 리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동서양 미술 교류에도 힘썼다. 전시에는 판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복제 판화 중 '아담을 심판하는 산'과 야나기가

1916년 처음 조선을 방문해 부산의 고물상에서 사들인 '철사 윤죽문 항아리' 등 조선 공예품, 일본 모쿠지키 쇼넨이 제작한 '허공장보살상' 등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또 그가 3·1 운동 이듬해 4월에 가이조와 동아일보에 게재한 기고문 '조선의 친구에게 보내는 글'과 직접 고안한 1인용 의자, 2인용 벤치, 테이블 등도 전시된다.



서울에서 만나는 최후 인상파 화가의 3대 걸작

전시 9월 29일까지
관람료 성인 1만3천 원, 청소년 1만 원
문의 1588-2618

최후의 인상파 화가로 불리는 폴 고갱(1848~1903)은 산업 문명으로 물들어가는 세계에 환멸을 느끼고 지상 속 낙원을 찾아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떠났다. 때 묻지 않은 원시생활의 매력에 빠져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지만, 그가 갈구하던 성공은 이루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에 찌들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고갱의 대표 걸작을 비롯한 유명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전에서는 세계 30여 미술관에서 빌려온 고갱의 작품 6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고갱의 예술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두 해를 꼽는다면 그가 프랑스 브르타뉴의 작은 마을 퐁타방에서 보냈던 1889년 '브르타뉴 시기'와 '폴리네시아 시기'에 속하는 1897년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식민지 마르티니크에서 5개월간 머무르며 회화에 새 눈을 뜬 고갱은 브르타뉴에서 인상주의와의 결별을 알리는 상징주의의 대표작 '설교 후의 환상'과 '황색 그리스도'를 내놔다. 가난과 질병에 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말년의 폴 리네시아 시기에는 자신의 사상과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대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완성했다. 전시에서는 고갱의 예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 두 해에 초점을 맞춰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또 노재운, 마르코 브람빌라, 라샤드 뉴섬, 양푸동, 임영선 등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접목시켜 '고갱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국내 첫 고갱 회고전이자 브르타뉴·폴리네시아 시기를 대표하는 3대 걸작이 한자리에 모인 첫 전시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좀비의 거대한 습격 '월드워Z'

'좀비'라는 존재는 B급 오락 영화의 흔한 소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한층 더 강력해진 좀비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중심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나섰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과 주연을 맡은 영화 '월드워Z'는 전직 유엔 조사관 제리(브래드 피트)의 평온한 가정과 전 세계적인 이상 징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된 도시를 겨우 빠져나온 제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병의 근원을 찾아 대재난을 막는 것이다. 대통령도 죽고 부통령은 행방불명에, 전 세계는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괴되는 상황. 가족과 함께하려고 일도 그만뒀던 제리는 결국 가족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재난의 한복판에 뛰어들다. 제리가 가장 먼저 파견되는 곳이 다른 아닌 한국이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제리는 '좀비'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할 평택 미군기지 보고서를 토대로 평택에 파견돼 병의 기원을 찾아 나선다. 이후 영화는 좀비를 추적하는 제리의 여정을 따라 높은 장벽을 쌓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으로 무대를 옮겨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준다.

영화는 소리에 민감하고 단 12초면 인간을 좀비로 만들고 마는 좀비와의 쫓고 쫓기는 장면 등을 통해 시종일관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진하는 대규모 좀비 군단의 습격은 박진감 그 자체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좀비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탑을 쌓아 거대한 이스라엘 장벽을 넘는 좀비떼, 6천m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 등은 한마디로 장관이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 세계를 구하려 목숨 걸고 나선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재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설정이다. 그래도 여타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와 달리 미국 정부가 멸망 위기에 놓인 전 세계를 구한다거나 대재앙이 주인공 덕분에 단 한 번에 해결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이 영화가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박사가 오발로 아이없이 죽거나 '위장 백신'을 찾은 제리가 콜라를 마시는 장면 등은 보는 이의 실수를 유발한다.



New Films

▼ 더 콜

감독 브래드 앤더슨 출연 할 베리, 아비게일 브레스린 개봉일 6월 20일, 청소년 관람 불가

조던(할 베리)은 911 콜센터의 유능한 요원이다. 침착하고 기민한 일 처리로 동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소녀의 응급 전화에 대응하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이후 6개월간 조던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녀를 죽게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신입 요원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한 쇼핑몰에서 또 다른 소녀(아비게일 브레스린)가 괴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자동차 트렁크에 갇힌 채 어딘가로 끌려가던 소녀는 범인 모르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한다. 우연히 이 전화를 받게 된 조던, 소녀와 통화를 지속하며 범행 차량과 범인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사력을 다한다.



▼ 버니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 출연 잭 블랙, 셸리 맥클레인 개봉일 6월 20일, 15세 이상 관람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의 작은 마을 카시지에 새로 온 장례사 버니 티드(잭 블랙)는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가족을 잃은 이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애프터서비스'까지 확실한 남자다. 버니는 모두가 싫어하는 성격 더럽고 늙고 못된 미망인 마조리 부인(셸리 맥클레인)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녀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마조리 부인은 버니를 하인처럼 부리며 집착하고, 이에 지쳐가던 버니는 결국 마조리 부인에게 총을 쏜다. 범죄 사실을 순수히 인정하는 버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버니의 무죄를 주장한다. 1996년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감독은 이 황당한 사건을 기사로 접한 뒤 직접 재판을 찾아가고 주변 인물의 증언을 들으며 '마성'의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 로봇G

감독 야구치 시노부 출연 미키 커티스 개봉일 6월 20일, 전체 관람가

은퇴 이후 지루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스키 할아버지(미키 커티스)는 우연히 하루에 3만 엔을 준다는 '인형탈 쇼' 구인 광고를 접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 이는 사실 로봇 박람회를 앞두고 개발한 로봇을 박살 낸 '기무라 전기'의 3인방이 해고를 모면하려고 짜낸 계획이다. 신제품 로봇 '뉴 시오카제'의 크기에 몸집이 딱 맞아떨어진 덕분에 로봇 안에 들어가게 된 스키. 그는 박람회에서 '로봇 마니아인 요코(요시타카 유리코)를 구해주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다. '뉴 시오카제'가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늘 조마조마한 기무라 전기 3인방은 최고급 호텔과 온천, 마사지 등을 요구하는 꼬장꼬장한 스키의 비위를 맞추려, '뉴 시오카제'의 돌발 행동을 자제시키려, 새 로봇 개발 기술을 익히라 하루하루 정신이 하나도 없다.



▼ 에브리데이

감독 마이클 윈터버텀 출연 셸리 헨더슨, 존 심 개봉일 6월 13일, 청소년 관람 불가



카렌(셸리 헨더슨)이 주말마다 이른 새벽에 어린 네 자녀를 이끌고 향하는 곳은 남편 이안(존 심)이 수감된 런던의 한 교도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들의 면회는 계속된다. 영화는 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묘하게 흔들리기도, 다시 제자리를 찾기도 하는 이들 가족의 일상을 담담히 따라간다. 극 중에서도처럼 5년에 걸쳐 촬영돼 어린 4남매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라며 변함없이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90분이라는 길지 않은 상영 시간에 남매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구현됐다. 감독은 아예 실제 친남매 네 명을 한꺼번에 캐스팅했고, 이들 남매의 집과 학교에서 촬영해 보다 사실적인 분위기를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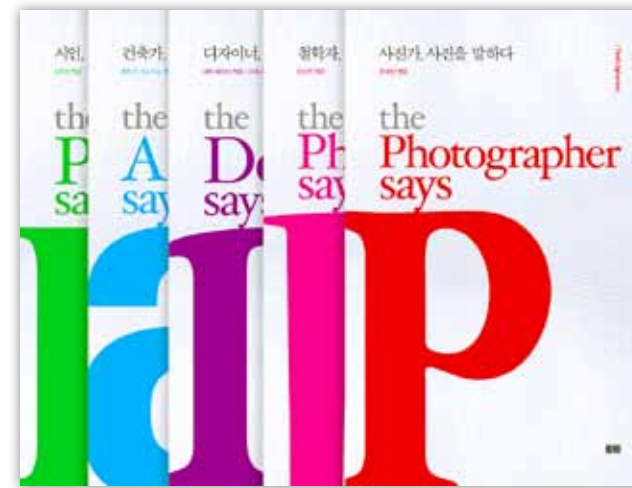


‘일상이 꽃’인 도쿄에서 만난 매력적인 공간

일본 도쿄에는 꽃집이 편의점만큼 많은 동네가 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50~100m 간격으로 꽃집이 나타난다. 도쿄 사람들에게 꽃은 기념일이나 구입하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다. 거실과 방, 부엌과 화장실을 꾸미기 위한 예쁜 소품이다.

플로리스트 수업을 받기 위해 아오야마 플라워마켓에서 근무한 저자가 도쿄에서 ‘꽃’과 얽혀 있는 22곳을 소개했다. 내부가 우아하고 화려한 상점,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나는 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꽃집은 물론 꽃시장, 미술관, 공원, 가위 케이스를 파는 가게까지 다양하다. 밸런타인데이와 벚꽃 축제, 수국 축제, 핼러윈 등 수많은 꽃이 등장하는 도쿄와 근교의 행사도 확인할 수 있다.

노사라 지음/미래의창/264쪽/1만3천 원



가슴을 울리는 현인들의 아포리즘

“이는 비를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앎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인 공자가 남긴 글이다. 긴 연설보다 한두 문장의 말이 더 감명적일 때가 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경구가 이치를 깨우치기도 한다.

철학과 시, 사진, 건축, 디자인을 대표하는 대가들이 남긴 잠언을 모은 책이 출간됐다. 철학자 강신주와 시인 고두현, 사진가 조세현, 건축 전문가인 로라 S. 더스키스, 작가인 사라 베이더가 편저자로 나섰다. 그들이 평소 책을 읽으며 마음 깊이 새기고자 했던 글귀를 하나씩 모았다

강신주 등 지음/토트/176-200쪽/각권 1만3천 원

자전거로 돌아본 중국의 속살

7년 전 두 바퀴로 미국을 횡단한 라이더(Rider)가 이번에는 중국 여행에 도전했다. 수도 베이징,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시안, 경제 중심지 상하이로 꼭짓점으로 삼아 8대 고도와 주요 도시를 거치는 일정이다. 길이는 약 4천km, 주어진 시간은 비자가 허락한 60일이다. 4천km는 1만 리에 해당하니, ‘만리장정’인 셈이다. 걸음과 말하기는 인간의 본능이고, 걸음에 속도를 더한 자전거 타기는 말에 운을 붙인 ‘노래’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라오바이싱(老百姓)’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어 여정은 4천800km로 늘어났다. 재미있는 중국 기행문이자 대륙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이다.

홍은택 지음/문학동네/376쪽/1만5천800원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인문학

2001년 12월 돌연 강단을 떠난 한 대학교수가 향한 곳은 쓰레기로 뒤덮인 세계였다. 그는 그곳에서 냉미를 걸친 채 학문을 연구하는 대신 쓰레기 더미에서 쓸 만한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장장 8개월씩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재 텍사스 크리스천대학에서 사회학, 범죄정의학, 인류학을 가르치는 제프 페럴 교수. 그는 미국 애리조나대학의 중신 교수직을 버리고 고향인 텍사스주 포트워스로 돌아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8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책은 페럴 교수가 보고 겪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페럴 교수는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들의 일상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우리의 ‘버리는 문화’를 사회학자 특유의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비판한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소비문화의 그늘’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제프 페럴 지음, 김영배 옮김/시대의창/360쪽/1만8천 원

서양의 경기침체는 거대한 퇴보의 전조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살던 18세기에 ‘오랜 정체 상태’에 있던 나라는 중국이었다.

스미스는 중국이 정체 상태가 된 것은 관료주의 등 중국의 법률과 제도 탓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스미스의 이런 분석은 지금 보기 좋게 빛나갔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서양 국가들은 정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책에서 서양 국가들이 정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결점’, ‘제도의 취약성’, ‘변호사의 통치’, ‘무책임한 사회’ 등이 ‘모두가 합쳐져 서양의 ‘대퇴보’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전 세계가 겪는 ‘대침체’는 이러한 ‘대퇴보’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니얼 퍼거슨 지음, 구세희 옮김/21세기북스/224쪽/1만5천 원



‘태양왕’ 루이 14세도 갖지 못한 ‘잠자는 방’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침실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세기까지도 가난한 농민들은 한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잤다.

절대왕정 시대 왕에게도 사적인 침실은 허용되지 않았다. 왕의 침실은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위계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적 공간이었다. 20여 명에 이르는 시종과 이발사, 시계 담당자 등이 루이 14세의 아침과 저녁 준비를 도왔다. 왕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거의 지지 않았다. 왕은 공식적인 취침 의례가 끝나면 왕비나 정부(情婦)의 처소로 가서 잠을 잤다. 책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방이 사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미셸 페로 지음, 이영림·이은주 옮김/글항아리/752쪽/4만 원



'팝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 3년 만의 내한 투어

'팝페라의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이 2010년 이후 3년 만에 내한해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 '드림체이서(Dreamchaser) 코리아 투어 2013'을 연다.

브라이트만은 이번 투어의 테마를 '우주'로 잡았다. 그는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훈련을 받고 여기서 얻은 영감을 지난 4월 발표한 신보 '드림체이서'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엔젤(Angel)', '원 데이 라이크 디스(One Day Like This)' 등 '드림체이서' 수록곡을 비롯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수록곡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그는 이번 월드 투어를 위해 초기 무대 제작에만 30억 원을 쏟아부었으며, 이를 통해 음반의 콘셉트에 맞춘 광활한 우주의 이미지를 무대에서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3일), 대구 엑스코(24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일정 7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VIP석 16만5천 원, SR석 13만2천 원, R석 11만 원, S석 9만9천 원
주최 액세스이엔티
문의 02-3141-3488

'봄봄봄' 로이킴,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케이블 채널 엠넷(Mnet)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 우승자 로이킴이 첫 단독 공연인 '로이킴 첫 번째 콘서트'를 연다.

그는 지난 4월 어쿠스틱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자작곡 '봄봄봄'을 발표해 싸이와 조용필이라는 두 가요계 '폭풍' 속에서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부산 KBS홀(6일)을 시작으로 서울 연세대 대강당,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19일),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20일)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로이킴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팬들의 힘"이라며 "무엇보다 콘서트로 팬을 직접 만나고 싶다. 오디션 우승만큼이나 떨리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일정 7월 13일 오후 6시·14일 오후 5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
티켓 R석 8만8천 원, S석 7만7천 원
주최 CJ E&M
문의 1544-1555

자우림, 몽니 등 사운드홀릭 10주년 페스티벌



일정 7월 4~21일, 서울 홍대 사운드홀릭시티
티켓 스탠딩 3만3천 원
주최 사운드홀릭
문의 02-3141-4206

밴드 자우림, 몽니 등이 소속된 음반기획사 사운드홀릭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음악 페스티벌을 연다.

페스티벌은 '뮤직 & 컬처'를 주제로 서울 홍대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조명하는 문화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다. '클럽 스테이지', '컬처 스테이지', '컬처 부스'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자우림, 클래지콰이, 노브레인, 십센처, 이상은, 몽니, 황신혜밴드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밴드와 신인 뮤지션 등 60여 팀이 무대에 오른다.

'팝 거장' 퀸시 존스 첫 내한 공연



일정 7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티켓 VIP석 17만6천 원, SR석 14만3천 원, R석 12만1천 원, S석 9만9천 원
주최 CJ E&M
문의 1544-1555

램 제작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오프 더 월(Off the Wall)', '스릴러(Thriller)', '배드(Bad)' 등의 명반을 제작했다. 아프리카 구호를 위한 노래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가 수록된 '유에스에이 포 아프리카(USA for Africa)'도 만들었다.

공연에서는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패티 오스틴, '저스트 원스(Just Once)'로 잘 알려진 제임스 잉그램, 시다 가렛 등이 무대에 오른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톨카체프 빅 밴드 첫 내한

지난 2002년 러시아 공훈 예술가로 선정된 지휘자 블라디미르 톨카체프가 이끄는 동명의 빅 밴드가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 빅 밴드는 노보시비르스크 주립 음악원 졸업생 20여 명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1985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클래식, 재즈록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연주해 왔으며,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재즈로 편곡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쇼팽, 리스트 등이 작곡한 익숙한 클래식과 함께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등 재즈 뮤지션의 곡을 차례로 들을 수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울산현대예술관(16일), 경남문화예술회관(18일), 구리아트홀(19일)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지방 공연에서는 가수 안치환도 무대에 오른다.



일정 7월 1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10만 원, S석 8만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C석 3만 원, 휠체어 S석 8만 원, 휠체어 B석 4만 원
주최 브라보컴
문의 02-3463-2466

임재범 10개 도시 전국 투어 '걷다 보면...'



임재범이 오는 7월 5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등 10개 도시를 도는 전국 투어 '걷다 보면...'을 진행한다.

그는 관객과 한층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고자 큰 체육관이 아닌 1천600석 규모의 연세대 대강당을 택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연 영상 시나리오, 선곡 작업, 무대 연출까지 세심하게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 '고해', '너를 위해' 등의 히트곡뿐 아니라 다른 가수의 리메이크곡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이 사전에 신청한 팝송도 들려줄 계획이다.

임재범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 주는 동반자 같은 콘서트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단순히 가수와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의 만남이 아닌 '소울 메이트(Soul Mate)'의 만남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정 7월 5일 오후 8시·6일 오후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
티켓 R석 12만1천 원, S석 9만9천 원, A석 7만7천 원
주최 에이엔지엔터테인먼트, 쇼플레이
문의 1544-1555



휴먼 코메디

명동예술극장 여름 레퍼토리 '보이책', '휴먼 코메디'

신체언어 연극으로 유명한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대표작 '보이책'과 '휴먼 코메디'를 서울 명동에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보이책'은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독일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을 재해석해 2000년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상사의 괴롭힘을 당하고, 의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고, 상급 장교에게 아내까지 빼앗기는 힘없는 군인 보이책이 정신착란에 빠져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다.

무대는 배우 11명과 의자 11개, 피아졸라의 음악으로 채워진다. 초연 무대에 섰던 배우 고창석이 중대장 역할로 분해 2회 특별 출연한다.

또 다른 대표작 '휴먼 코메디'는 한 차원 높은 코미디를 표방하며 1999년 초연한 작품이다.

극은 '가족', '냉면', '추적'의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육하원칙에 충실한 설득력 있는 설정, 잘 계산된 타이밍과 움직임, 일인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일상불란한 연기가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든다고 평가된 작품이다.

일정 7월 3~27일 평일 오후 7시 30분·토 오후 3시/7시 30분·일 오후 3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티켓 R석 5만 원, S석 3만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영국 비밀 결사대장의 삶과 사랑 '스칼렛 핼퍼넬'

프랑스 혁명기 영국 비밀 결사대장의 삶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스칼렛 핼퍼넬'이 관객을 찾아온다.

헝가리 출신의 영국 작가 바로네스 에무스카 오르치의 동명 시리즈 소설을 토대로 만든 작품으로, 1997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였다.

프랑스 혁명 막바지 과격 혁명 세력의 공포정치로 단두대에 피가 마르지 않던 시기 비밀결사대를 조직한 '스칼렛 핼퍼넬(퍼시)'의 이야기를 그린다.

별뿔뿔이꽃이라는 뜻을 지닌 '스칼렛 핼퍼넬'은 프랑스 과격 혁명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결사대를 만든 '퍼시'의 가명이다. 퍼시는 무고한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로베스피에르 주도의 혁명 세력에 맞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프랑스 여배우 출신인 아내 마그리트의 전연인이자 과격 혁명파인 쇼블랑의 계략에 휘말리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다.

퍼시(스칼렛 핼퍼넬) 역은 배우 박건형, 박광현, 한지상이 번갈아 맡는다. 퍼시의 아내 마그리트 역으로는 뮤지컬 배우 김선영과 가수 바다가 출연한다. 쇼블랑 역에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와 에녹이 각각 발탁됐다.

일정 7월 6일~9월 8일(프리뷰 공연은 7월 2~5일) 평일 오후 8시·토 오후 3시/
7시 30분·일 오후 2시/6시 30분,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티켓 VIP석 13만 원, R석 11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문의 1577-3363



'지금 여기에서' 즐기는 '여우락 페스티벌'

국립극장이 우리 음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여우락(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페스티벌'을 연다. 박물관 속 국악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관객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음악이 펼쳐진다.

전통음악을 재로로 동시대적이고 창의적인 음악 활동을 펼쳐 온 음악인들이 무대 전면에 선다. 특히 올해 축제는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이 돋보인다.

첫 주에는 가야금 명인 황병기, 사진작가 배병우,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함께 만드는 토크 콘서트 '동양의 풍경'이 공연된다.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그룹 '푸리'의 결성 20주년 기념 콘서트도 눈길을 끈다.

둘째 주에는 각각 바다와 숲을 주제로 한 음악을 만들어 온 월드 뮤직 연주 그룹 '공명'과 '그림'이 함께 무대에 서는 '바다 숲' 공연, 정기악회의 다큐멘터리 콘서트 '아리랑, 삶의 노래-강원도 평창' 등이 펼쳐진다.

축제는 동해안 별신굿 악사인 김정희가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호주의 유명 드러머 사이먼 바커와 함께 꾸미는 '신(神)이 있는 풍경'으로 이어진다. '양상블 시나위'와 국립창극단 신예 민은경의 합작 공연 '판소리, 악기를 만나다'도 기대

해 볼 만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한영애, 양방언이 함께 만드는 무대 '조울'과 김수철의 6년 만의 단독 콘서트 '거장의 재발견'이 대미를 장식한다.

일정 7월 3~27일, 서울 장충동 KB 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
티켓 3만 원(아외 공연은 무료)
문의 02-2280-4114

바딤 레핀과 세종솔로이스츠의 만남, '현(絃)의 고수' 특집

'20세기의 하이페츠'로 불리며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는 바딤 레핀이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와 만난다. 최정상의 솔리스트와 현악 앙상블의 만남, 그야말로 '현(絃)의 고수' 특집이다. 레핀은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6개월 후 무대에 선 신동이었다. 11세에 비에냐프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딴 그는 17세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막심 벤게로프, 예프게니 키신과 함께 '러시아 3대 신동'으로 불리며 러시아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약을 펼쳤다.



풍부한 음색과 음악적인 예민함, 불 같은 열정, 무결점의 테크닉 등이 그의 장점

으로 꼽힌다. 국내 팬들에게도 꽤 친근하다. 그는 지난 2010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피아노 거장 라두 루푸의 건강 악화로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예술감독 정명훈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흔쾌히 대타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왁스만 버전의 '카르멘 판타지' 등 현악기의 매력에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무대를 채운다.

멘델스존의 작품은 강렬하고 웅장한 현악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섬세하고 정교한 바이올린 선율이 잘 조화된 명곡이지만, 국내에서는 자주 연주되지 않아 실연 감상의 기회가 드물었다. 레핀은 "선명하고 눈부시면서도 다정다감하고, 때로는 지극히 심오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카르멘 판타지'는 잘 알려진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선율을 소재로 작곡된 곡으로, 낭만과 열정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일정 7월 21일 오후 4시,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티켓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문의 1577-7766